

# 미국적 종교다원주의의 독특성 연구\*

김 중 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 I. 미국종교사의 맥과 현대 미국의 다종교 상황

미국은 인종 못지 않게 종교가 다양하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미국 종교사의 책들에서 가장 강조되어온 주제는 미국종교의 다원적 성격이다. 우선 고전적인 시드니 올스트롬의 책<sup>1)</sup>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많이 읽히는 캐더린 알바니즈의 책<sup>2)</sup>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가 그러하다.

본래 미국의 성립이 개신교 전통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단일 국교의 정통성을 기조로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영국에서 메이플라우어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박해를 피해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자유”는 개신교의 울타리 안에서 용인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교화(establishment)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심지어는 독립 후에 헌법(보칙 제1항)에서 국교금지가 성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개신교(특히 WASP)가 미국종교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1833년 매서츄세츠주가 파기할 때까지 실제로 국교제도는 계속 되었던 셈이다.

물론 최근 일부 학자는 미국 초기 이민자들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유럽에서처럼 초창기 이민자들은 기독교에 거

---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1) Ahl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
- 2) Albanese, Catherine, *Religions and Relig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의 무관심했었고, 오히려 강요된 국교제도가 기독교를 그나마 살아남게 하였다는 것이다.<sup>3)</sup> 사실상 건국 초기의 통일된 신앙체계는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하나의 광적인 신앙에 편협된 몰입을 거부하는 뉴잉글랜드의 공공적 신앙전통에 의하여 세련된다. 특히 이들은 이성적인 합리주의자들에 의해 복합적 성격을 띄게 된다. 물론 이들이 무신론자(atheists)들은 아니었다. 신은 믿으나 성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이성에 근거하여 신앙에 접근하는 일종의 이신론자(deists)들과 비슷하였다. 종교는 정치적 권위가 개입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직접적 관계라고 믿어서 이들은 국교제도를 반대하였다. 즉 종교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고 지각되어서 실천의 다양성이 합법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19세기 미국의 비국교화 과정은 이미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엘리트들의 종교사상 속에 배태되어졌었던 셈이다. 다만 비국교화가 헌법적으로 성립되어도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피부로 실감나게 느껴진 것은 한참 더 뒤였다.<sup>4)</sup>

여기에 덧붙여 1890년경부터 새로운 다양한 이주민들이 동유럽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들어와 대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미국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이주민 집단들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승기회가 많은 거대도시 속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위주로 주류에 합입된다. 이것은 새 이민자들의 지위 상승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가져온 비개신교적 성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초교파적 무드가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특히 신분이나 교육 등에서 단순히 종교적 다원성(religious plurality)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소위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미국인들에게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자발적 집단(voluntary associations)들을 많이 생겨나게 한 것이

3) Butler, John, *Awash in a Sea of Faith: Christianizing the American Peop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Moore, R. Lawrence, "American Religion as Popular Culture," *Religious Studies Review*, 18/3, 1992, p. 91에서 재인용).

4) Bellah, Robert N., et. al., *Habits of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pp. 220-222.

지적되어 왔다.<sup>5)</sup>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국교적 헌법체제가 미국 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는데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고 생각된다.<sup>6)</sup>

아무튼 미국종교사의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세 가지 계기로 구분되기도 한다. 처음의 3백 여 년간은 개신교 중심으로 다 종교 상황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일변도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다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확대되면서 다 종교 상황이 점차 정착되어, 공공적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각개 개별 종교들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주류 개신교 속으로 포함되어 미국화 되려는 경향의 두 경향으로 반응이 양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확대되는데, 이런 와중에 여러 개별종교들의 서로를 향한 반응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으로 되어 간다.<sup>7)</sup>

한편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1980년대까지 종교들은 사회적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허버그(Will Herberg)의 책<sup>8)</sup>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종파적 아이덴티티가 에큐메니즘(ecumenism), 지리적 이동성, 종교(파)간 상호결혼 및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공공적 강조 등의 결과로 점차 거의 사라지게 된다.<sup>9)</sup>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보수 복음주의적 경

5) Parsons, Talcott, "1965 Harlan Paul Douglas Lectures: Religion in a Modern Pluralistic Socie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7 (1966): 125-132.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가 이때쯤부터 공공질서의 일부이기보다 점차 개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여겨진다. 토크빌(De Tocqueville)이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분리됨을 격찬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Bellah, Robert N., et al., *Op. Cit.*, p. 223)

6) 그러니까 미국교회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된 이민자 종교집단들의 소 종파 운동의 확대로 인한 종교다원주의의 만연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교회가 정부의 기능 성장과 더불어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어 종교가 지니고 있던 공공성이 또한 해체되어 왔음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한다. (Marty, Martin E., Review of: Wuthnow, Robert J.,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Religious Studies Review*, 15/4, 1989, p. 310)

7) Albanese, Catherine, *Op. Cit.*, p. 503.

8) Herberg, Will, *Protestant, Catholic, Jew*, Garden City: Anchor Books, 1955.

9) Wuthnow, R.,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Further Evidence," *Sociological Inquiry*, 66/3 (August, 1996): 303.

향이 확대되면서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일부 종파간 갈등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sup>10)</sup>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재차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II. 미국종교의 다원적 성격과 그 의미

하지만 미국의 종교다원주의가 흔히 말해지는 종교다원주의와는 사뭇 다른 것은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이 완전히 서로 다른 종교들이 경쟁적으로 공존함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등과는 애초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진정한 헌법적인 의미의 종교다원성이 용인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부터라는 점에서 미국적 종교다원주의는 현대의 모든 종교다원주의의 본보기적 모델로 여겨지기도 한다.<sup>11)</sup> 또 오늘날에는 거의 전세계 종교들이 미국에 부분적으로라도 대개 들어와 있다.<sup>12)</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종교의 중심은 역시

10) *Ibid.* pp. 303-306. 일부에서 세속화 논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신학자들과 엘리트 종교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최근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한 프린스턴 종교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미국인들은 94%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또 71%가 내세를 믿고, 40% 이상이 일요일에 대체로 교회에 나간다. (Roberts, Keith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3rd ed., Belmont: Wadsworth, 1995, pp. 353-355)

11) Berger, P. 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p. 135.

12) 물론 가톨릭이 약 5,000 만명으로서 최대의 단일 종파이다. 그 외에 10대 종교(파)로서 동방 정교(Eastern Orthodox), 자유주의 개신교(Liberal Protestant), 보수 복음주의(Conservative Evangelical), 성결교(Holiness), 오순절-카리스마적(Pentecosta-Charismatic) 종파,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및 인디안 종교(Native American Religions)를 흔히 꼽는다. (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Washington D. C.: Gale Research Inc., 1993, pp. 20f.) 이 외에 초월명상(TM), 신비주의, 몰몬교, 및 불교나 힌두교에서 파생된 신종교 등에 연관된 사람 수가 전 인구의 4% 이상이나 된다. (Roberts, Keith A., *Op. Cit.*, p. 350)

기독교임에 틀림없다는 점이다.<sup>13)</sup> 즉 미국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유대-기독교 전통이 주류가 되는 ‘종파다원주의(denominational pluralism)’ 국가인 셈이다. 즉 미국종교의 다원성은 본래 역사적 초창기 이민의 다양한 종교(파)들이 미리 모양 잡아 왔다. 그러므로 유대-기독교 지향적 종파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아주 최근에는 심지어 동양종교들 및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관한 신앙이나 뉴 에이지(New Age) 신앙과 같은 이질적 신종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개방적 수용이 일어나고 있다.<sup>14)</sup> 특히 제도적 종교 교단들에 대한 비판이 야기되면서 미국교회들 자체가 아주 다양한 형식들을 띄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소 교파들이 미국 개신교의 정체성에 새로운 공헌을 하여 왔다. 더욱 나아가서 갤럽조사에 의하면, 미국 종교인의 80%가 어떤 특정 교회와는 따로 독립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2억 2,000만 미국인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조차도 있다.<sup>15)</sup>

어찌되었든 여러 종교들이 하나의 사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주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앙을 방어해내려면 다수의 타종교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가톨릭 교인은 같은 기독교인으로 여길 수가 없었다.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을 제국주의적이며

13) 1986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전체 미국인의 1/3이 거듭난 기독교인들이다. 적어도 5,000만명 이상이 개인적 종교경험을 가졌다고 말한다. (Roberts, Keith A., *Op. Cit.*, p. 349) 개신교는 주류 자유주의파와 보수 복음주의파가 각각 4,0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서 주류 자유주의파란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에서 주로 교회연합운동(ecumenicalism)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교단들이다. 반면에 보수파 중에서 최대 교단은 1,600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남침례교이다. (Melton, J. Gordon, *Op. Cit.*, pp. 21f.)

14) Albanese, Catherine, *Op. Cit.*, pp. 15-16.

15) 벌써 오래 전, 제퍼슨(Jefferson)은 “내 자신이 교파(sect)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정 종교단체를 넘어서는 초종교(파)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심지어 범신론적 신비주의(pantheistic mysticism)에 매력을 느끼기도 하였다. 오늘날 유니테리안(Unitarian) 교파를 비롯한 여러 자유주의 교파들이나 급진적 개인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범신론적 성향과 내면종교(internal religion)적 절충 경향들은 쉽게 발견된다. (Bellah, Robert N., et. al., *Op. Cit.*, pp. 221-225)

미신으로 꼭 찬 종교로 보았다. 사제들과 수녀들의 독신생활은 비난의 대상이었고, 또 종종 그들의 섹스 스캔들이 까발려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교황이 적그리스도(Anti-Christ)로 생각되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서 케네디(John F. Kennedy)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쯤에야 비로소 가톨릭의 큰 수난이 거의 마무리되었다.<sup>16)</sup>

한편 유대교는 19세기말까지 그다지 박해를 받지 않았다. 성서적 관심과 아직 사회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음, 그리고 유대교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공격을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남북전쟁 때쯤부터 서서히 반유대교주의(anti-Semitism)가 목격된다. 특히 전쟁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점이 비난되었고, 19세기말 이후 동유럽의 가난한 유대인들이 대거 이민을 오면서 반감이 확대되었다. 사교 모임이나 여름 휴양지 및 동부 특정 대학의 학생모임 등에서 그들은 배척되었고, 집을 얻기도 아주 힘들게 되었다.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도 차별을 당하고, 일부 테러집단(Ku Klux Klan)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개신교 측에서 다수의 타종교와 우호적으로 만나보려는 시도들은 물론 또한 있었다.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과 자유주의 상류층의 유니테리안(Unitarians) 교파의 활동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 등으로 구체화되는 개신교의 타종교를 향한 낭만적 문화팽창 등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sup>18)</sup>

반면에 다수의 타종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미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류와 만나고 그들 속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프리카 종교나 아메리칸 인디언 종교들은 자신들의 의례나 생활 방식을 지켜 가면서 주류 개신교에 파고들었다. 유대교나 가톨릭 및 비주류적 개신교 등은 미국 내에서 본래의 전통과는 사뭇 구별되는 독특한 제도적 자체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교파운동들과 신종교 운동들이 확산되었다. 결국 다수의 타종교들

16) Albanese, Catherine, *Op. Cit.*, pp. 503-509.

17) *Ibid.*, pp. 509-512.

18) *Ibid.*, pp. 513-517.

은 양면적 성향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즉 자신들의 독특한 종교적 방식은 유지해 가면서 동시에 종종 지배적인 공공적 종교의 요소를 반영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일부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선교는 매우 공격적 방식을 택했다. 즉 다수의 타종교들이 집중적 선교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자체 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류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확고한 입지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sup>19)</sup>

결국 다 종교 상황 속에서 주류 개신교와 다수 타종교의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거대한 충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로 적대적인 동시에 공통된 것을 공유해 나아가는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서로간 긴장은 있지만 이것이 창조적인 면으로의 작용을 유도하기도 하여, 유대교인이 가톨릭 예배에 참여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인 종교를 믿는 흑인들의 권리투쟁에 유대교인들은 적극적인 후원을 하였었다. 특히 이러한 종교적 협조는 일상생활에서 상호관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종교들은 낯선 타자들과의 협조의 모델이 되었던 셈이다. 또 정당정치도 종교간 협조의 수단이 되어 왔다. 미국의 민주당은 빈민과 이민자 그리고 아프리카-아메리칸과 가톨릭과 유대교인들의 정당으로 특징지워져 왔다.<sup>20)</sup>

결국 다원적 종교 상황은 사회 문화적인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예컨대 같은 종교(파) 안에서도 사회적 개입변수들에 의해 보수와 자유 등이 세분된다. 즉 침례교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톨릭과 감리교가 가장 덜 보수적이며, 성공회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장로교와 침례교가 가장 덜 자유주의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같은 가톨릭이어도 대학교육을 받고 30-49세인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고, 같은 침례교이어도 남부, 공화당원들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수성은 교단 내 특수한 목적의 집단들 때문이라기보다는 회중들의 상호행위 때문이라고 조사된다.<sup>21)</sup> 또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본격화되는

19) *Ibid.*, pp. 517-523.

20) *Ibid.*, pp. 523-526.

21) Wuthnow, R., *Op. Cit.*, pp. 307-326.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보수와 자유도 일상생활 속의 일과 가족문제 등 세속가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종교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sup>22)</sup>

### Ⅲ. 다 종교 속에 내재한 통일 지향성

한편 미국에 종교들이 여럿 있다고 하여 그들이 따로따로 철저히 독자 노선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함은 더욱 중요하다. 오히려 다양한 종교(파)들이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다 보니 서로 간에 통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분모를 창출해내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sup>24)</sup> 그래도 대부분의 미국 종교공동체들은 어떤 보편성의 지평이라고 할 만한 것을 확보하고 있다.<sup>25)</sup> 즉 종교의 다원화 와중에 “거룩한 공동체(Holy Community)”라는 가치관이 사라진 듯하나, 소위 “공민

22) Bellah, Robert N.,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6/3 (1998): 614. 예컨대 인종의 혼합화는 종교의 혼합화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 프로 골프 선수로 메이저 대회를 휩쓴 타이거 우즈(Tiger Woods)는 백인 피가 1/8, 흑인 피가 1/4, 아메리칸 인디안 피가 1/8, 타일랜드인의 피가 1/4 그리고 중국인 피가 1/4 섞인 인물로서 불교신자이다. 1967년까지 해도 16개 주가 백인과 흑인간의 인종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반이 인종간 결혼한 부모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루이지애나 주에서 실시되었던 “흑인 조상이 추적되는 누구도 흑인”이라는 정의는 이제 무의미하고 추적조차 불가능하다. (White, Jack E., “I’m just who I am,” *Time*, May 5, 1997, pp. 32-36) 이러한 가운데 종교의 혼합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심지어 여러 종교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요소들을 혼합하여 혼자 믿는 이른바 ‘카페테리아 식’ 종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Bellah, Robert N., et, al., *Op. Cit.*, p. 221)

23) 이것은 소위 다문화주의에서, “우리 모두가 다르다. 그리고 각각 독특하다.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한다.”는 주장(*Ibid.*, p. 622)이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른다.

24) 이러한 공통분모를 소위 미국종교의 통일성 또는 독특성(unity)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것이 곧 미국의 종교적 아이덴티티의 근거라고 생각된다.

25) Bellah, Robert N., “Cultural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ularism,”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on Freedom of Religion in Ameri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1, p. 17.



종교(Civil Religion)”와 같은 주제 등에 잔존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예컨대, 이민들이 싸들고 왔던 신앙 보따리들은 2세나 3세가 되면 어느 덧 거의 그 고유한 성격들을 잃어버린다. 그 대신 소위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 즉 모든 종교(파)를 초월하면서 미국인이기에 믿게된 이른바 “미국종교(the American Religion)”로 동화되어 버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허버그는 미국을 “하나의 종교적 용광로(a religious melting pot)”라고 불렀다. 즉 미국종교사는 종교와 민족성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개신교가 약화되어 마침내 종교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서 그 양상이 변화했다고 한다. 즉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 했던 여러 종교(파)들이 그를 결국 잃게된 나머지, 세 주요 종교 전통들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유대교인)에 대한 각각의 역할도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sup>27)</sup>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미국종교의 독특성은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유래하며 언론, 공공학교 제도, 정부의 의사전달 체계 및 상업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미국문화에 대한 일상적 종교성의 주변에 수렴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므로 그 핵심적 요소는 개신교 주류, 공민종교 및 거대 문화종교이다.<sup>29)</sup> 알바니즈는 이렇게 미국종교사를 통해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종교 성향을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지배하고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다양한 형식의 천년왕국주의(millennialism)라고도 말한다.<sup>30)</sup> 아무튼 이것이 바로 미국문화의 주류이고, 민주적 대다수의 종교이며, 미국의 공식적 얼굴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는 다양한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공통문화(common culture)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시장

26) Parsons, Talcott, *Op. Cit.*, p. 134. cf. 공민종교의 개념에 대하여는 졸고, “미국의 공민종교론,” 『미국학』 9 (1986): 25-40 참조.

27) Herberg, Will, *Op. Cit.*

28) Albanese, Catherine, *Op. Cit.*, pp. 13f.

29) *Ibid.*, pp. 16f.

30) Frankiel, Sandr S., “Review of Catherine Albanese’s *America: Religions and Religion*,” *Religious Studies Review*, 13/4 (October 1987): 292.

(market)과 국가(state)를 매개로 전달되며 또 사회화(socialization) 기관들인 텔레비전과 교육 등을 통해서도 전달된다고 한다. 아무튼 그 공통문화의 주도 요소는 실용적 개인주의(utilitarian individualism)라고 말해져 왔는데, 사실상 그 저변에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종교가 있다는 것이다.<sup>31)</sup> 토크빌이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바닷가에 내렸던 최초의 청교도들에서 미국의 모든 운명을 내다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것이 다시 상기된다.<sup>32)</sup>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해몬드는 그의 책을 통해 미국의 독특한 종교적 신앙에서 유래하는 양심의 성스러움(the sacredness of conscience)이 다른 진지하게 주장되는 일상생활 속의 확신들에도 확장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적 신앙이 미국의 법 제도에 끼친 영향을 그는 강조한다. 이것은 적어도 미국의 공통문화의 뿌리가 단순한 실용적이거나 표현적인 개인주의라기보다 더 깊은 무엇, 즉 개인과 그의 양심의 독특한 성스러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sup>33)</sup>

한편 1636년 매서쉴레스 주에서 주류 개신교의 존 윈스롭(John Winthrop)이 종교통일을 강요함으로써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의 침례교파가 쫓겨났던 것은 종파적인 관점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이다. 오늘날 미국 최대의 개신교 교단인 침례교가 소수로서 박해받으며 출발하여 미국 종교문화의 다수가 된 것은 여기서 미국 사회가 다문화 이데올로기를 환대하는 이유의 시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즉 침례교인들이 특히 종교의 자유를 중시했던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종교의 자유는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풍토에서 가능했던 것이다.<sup>34)</sup>

31) Bellah, Robert N.,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pp. 61-617.

32) *Ibid.*

33) Hammond, Phillip E., *With Liberty for All: Freedom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34) Bellah, Robert N., "Cultural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ularism," pp. 1-5, 이에 관련하여 일찍이 엘니넥(Georg Jellinek)이 “현대적 인권 개념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해보는 것은 더욱 의미심장한 일이다. (Idem.,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p. 617)

다시 말해서 종교는 미국문화의 중심에 항상 있어 왔다. 그리고 초창기 주류 개신교는 사회개혁의 주도 세력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다. 반면에 유대교와 가톨릭 그리고 소수 개신교 종파들 덕분에 미국 사회는 정치와 사회 변동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측면을 누리게 된다. 특히 동유럽 이민 유대교인들과 가톨릭 신도들의 뉴딜 정책 당시 민주당에의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sup>35)</sup>

물론 현대에도 과연 미국에서 그러한 종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수도 있다. 사실 전통 사회에서는 혈연과 종교공동체가 사회적 중심 문화의 핵심적 전달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종교가 공통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의 현대 공통문화 형성의 장애적 성격이 공통문화에 비판과 새로운 창조적 변화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입장의 주장도 있다.<sup>36)</sup>

결국에 개신교를 주류로 하는 미국적 종교다원주의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둘 다 갖추고, 그들을 지켜온 셈이라 하겠다. 따라서 타종교들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이면서도 또 같은 하나의 커다란 지붕을 상징하려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적 종교다원주의의 독특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성이 장애일 뿐만 아니라, 긴장을 통해 변증법적 합일의 성공적 존재 방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특유의 영적 재산이라고 오늘날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 IV. 남부 종교의 경우

미국의 ‘남부’ 하면 보수적 백인 침례교인들이 위주여서 인종 갈등 못지 않게 종교 갈등이 심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앞서 논의된 미국적

35) Parsons, Talcott, *Op. Cit.*, p. 140.

36) Bellah, Robert N.,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p. 616.

37) Albanese, Catherine, *Op. Cit.*, pp. 528-529.

종교다원주의가 과연 남부 지역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것일까 한번 숙고해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수와 갈등 일변도의 기존 남부 종교 이해에 새로운 비판적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sup>38)</sup>

특히 남북전쟁 이후 남부 종교들의 보수성<sup>39)</sup>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혼란스러워 왔다. 실제로 “리틀록 사건” 등 보수적 개신교 교인들이 가톨릭 교인들을 박해한 이야기나 앞서 언급된 종교적 테러집단(KKK)의 이야기가 거의 다 남부에서 생긴 것들이다. 사실상 가장 근본주의적인 폐쇄적 교회들로 알려진 애팔래치안 산악종교 신앙과 신학도 본래는 스코트랜드-아이리쉬 ‘성례적 부흥’과 ‘독일 경건주의’ 등의 영향을 받고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식민지적 침례교 부흥문화’ 및 남부 벽지 지역에 대한 선교 기피 현상이 뒤섞여서 그 반발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교와 교단적 권위체제에의 도전은 당연히 이들을 중심 개신교에서 동떨어져 외딴 교단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sup>40)</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백인교회와 흑인교회의 공존 및 협조 그리고 타 지역 교회들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남부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것은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날 미국적 종교다원주의의 형성에 또 다른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

38) 하비는 심지어 최근에 미국 남부 종교의 연구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문화 연구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Harvey, Paul, “Sweet Homes, Sacred Blues, Regional Identities: Studying Religion, Race, and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Religious Studies Review*, 23/3, July 1997, p. 231)

39) 여기서 말하는 ‘남부의 보수성’이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정죄까지 하는 (즉 사탄들을 정복해내는) 남성적 공격성과 철저한 기도중심의 가정적인 독실한 교인됨의 두 측면을 다 포함한다. 물론 이 양자간의 긴장이 더욱 감정적으로 특유한 남부 종교의 기질을 야기시켜 왔는지도 모른다. (Ownby, Ted, *Subduing Satan: Religion, Recreation, and Manhood in the Rural South, 1865-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0, p. 14)

40) McCauley, Deborah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컨대, 미시시피 지역에 복음주의의 전파과정을 보면, 초창기부터 사랑, 평등, 희생을 호소해온 개신교라지만 폭력과 불평등과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당시 사회경제적 체계의 심각한 도전을 당면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전쟁 이전 남부 교회들의 이중인종 예배 (biracial worship)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바로 이러한 예배형식을 통해서 남부 복음주의자들이 흑인 형제들과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들을 가졌었다는 것이다.<sup>41)</sup>

또 남부 노예들의 민간적 종교성(folk religiosity)이 북측 선교사들에 의해 남부로 이식된 미국적 종교주의의 제도적 종교들에 합병되는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롭다. 물론 예배 형식 등에서 비롯하여 이 양자간의 간격은 대단히 심각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이질성은 남북 전쟁을 전후하여 이 제도적 종교들에 병합되는 흑인공동체들 자체 안에서 긴장관계를 야기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들 노예들의 민간적 종교성들은 상당한 정도로 제도적 교회 속으로 포괄 수용되며 발전해 왔다.<sup>42)</sup>

같은 맥락에서, 미국 주류문화 속에 수용되어 나름대로의 중요한 문화 형성에 공헌해온 남부 종교인들에서 유래하는 종교문화는 실로 엄청나다. 예컨대 19세기말 흑인 종교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성을 미국종교 문화 속에 동화시키며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해내려 했던 노력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아마도 미국 주류의 대중음악의 하나가 된 블루스는 바로 옛 아프리카에서 유래하는 토착적 영성들이 지하의 대중문화 속으로 끌어 내려지게 되는 매개로 서 탄생하였다고 할 것이다.<sup>43)</sup> 또 포크너(Faulkner) 속에 있는 종교, 엘비스(Elvis)의 신격화, 열광적인 교회의 형성 등은 모두 남부 종교문화의 미국 주류 문화화 과정의 산물들이다.

오늘날에는 진짜 미국적인 것은 오히려 남부에 있다고도 한다. 1996년 미국

41) Sparks, Randy J., *On Jordan's Stormy Banks: Evangelicalism in Mississippi, 1773-1876*,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4.

42) Montgomery, William E., *Under Their Own Vine and Fig Tree: The African-American Church in the South, 1865-190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43) Spencer, Jon M., *Blues and Evil*,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3.

에서의 올림픽 경기가 바로 남부 애틀랜타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 권투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Muhammad Ali)가 백인 보수주의자들을 모두 제치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햇불을 점화한 것은 매우 인상적 사건이었다. 물론 전체 경기 자체는 애틀랜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것을 지나칠 정도로 추구하는 여러 세일즈맨들의 잔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람교도이면서 차별 받던 흑인이 문화적 이벤트에 대표로까지 나설 수 있는 새로운 남부의 역사가 그 와중에 상징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sup>44)</sup> 이것은 또 한편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남부가 미국문화의 주류가 될 만큼 충분히 개방적인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례적 표현이었다고도 생각된다.

결국 기존의 남부 종교문화 연구들이 가졌던 보수적 복음주의의 일변도의 선입관은 새롭게 재평가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즉 지나친 남부 종교들에 대한 (보수적) 동질성 강조는 남부 지역적 종교전통 안에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놓쳐 온 셈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부 종교들의 미국적 종교다원주의 안에서의 그 나름대로의 올바른 위상을 너무 폄하해 온 셈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sup>45)</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미국의 종교문화가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다양성과 통일성의 양 축을 역사적인 맥으로 그대로 전개하면서 나름대로 발전하여 왔음을 주목할 수 있었다.<sup>46)</sup> 무엇보다도 미국은 흔히 다문화 국

44) Wilson, Charles R., *Judgement and Grace in Dixie: Southern Faiths From Faulkner to Elvi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5.

45) Harvey, Paul, *Op. Cit.*, p. 237.

46) 사실상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공존은 미국의 신학적 전개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어 왔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이후 종교다원주의 신학 논의가 다른 나라들에서와는 달리 쉽게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적 종교다원주의 풍토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종교다원주의 논의가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분모를 가정하여 전개되는 거대한 보편종교 신학 논의와 개개인이나 개별 종교의 작고 파편화된 종교경험의 가정에서 출발하는 포스트모던 신학 논의의 양자로 집중될 수 있었던 점도 미국적 종교문화를 고려했을 때 더욱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또 다른 하나의 독립된 긴 논의를 필요로 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다만 부분적인 논의로서, 참고, 「종교다원주의와 한국 신학적 의미」, 한국기독교학회 편, 『창조의 보전과 한국신학』, 대한기독교사회, pp. 421-427 참조.

가로서 종교도 단순히 파편화된 여러 종교들의 박람회장처럼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통일 지향적 성향이 표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전통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작금의 남부 종교문화조차도 통일 지향적 종교다원주의 이념에 중대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게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 현상들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미국종교 문화의 독특성이며, 또 나아가 다른 미국 문화가 지니는 창조적 역동성의 근원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9. 10. 3)

#### 참 고 문 헌

- 줄고, 「미국의 공민종교론」, 『미국학』 9 (1986): 25-40.
- 줄고, 「종교다원주의와 한국 신학적 의미」, 한국기독교학회 편, 『창조의 보전과 한국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93, pp. 407-445.
- Ahl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Yale University Press, 1972.
- Albanese, Catherine, *Religions and Relig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1.
- Bellah, Robert N., "Cultural Pluralism and Religious Particularism," Unpublished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on Freedom of Religion in Americ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81, pp. 1-19.
- Bellah, Robert N., "Is there a Common American Cultu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6/3 (1998): 613-625.
- Bellah, Robert N., et. al., *Habits of Heart*, New York: Harper & Row, 1985.
- Berger, P.L.,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7.
- Butler, John, *Awash in a Sea of Faith: Christianizing the American People*,

-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Frankiel, Sandr S., Review of: Catherine Albanese's *America: Religions and Religion*, *Religious Studies Review*, 13/4 (October 1987): 291-292.
- Hammond, Phillip E., *With Liberty for All: Freedom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Harvey, Paul, "Sweet Homes, Sacred Blues, Regional Identities: Studying Religion, Race, and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Religious Studies Review*, 23/3 (July 1997): 231-238.
- Herberg, Will, *Protestant, Catholic, Jew*, Garden City: Anchor Books, 1955.
- Marty, Martin E., Review of: Wuthnow, Robert J., *The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Society and Faith since World War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Religious Studies Review*, 15/4, (1989): 310.
- McCauley, Deborah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 Melton, J. Gordon,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Washington D. C.: Gale Research Inc., 1993.
- Montgomery, William E., *Under Their Own Vine and Fig Tree: The African-American Church in the South, 1865-1900*,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Moore, R. Lawrence, "American Religion as Popular Culture," *Religious Studies Review*, 18/3, (1992): 190.
- Ownby, Ted, *Subduing Satan: Religion, Recreation, and Manhood in the Rural South, 1865-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1990.
- Parsons, Talcott, "1965 Harlan Paul Douglas Lectures: Religion in a Modern Pluralistic Society,"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7 (1966): 125-146.
- Roberts, Keith A., *Religion in Sociological Perspective*, 3rd ed., Belmont: Wadsworth, 1995.



- Sparks, Randy J., *On Jordan's Stormy Banks: Evangelicalism in Mississippi, 1773-1876*,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4.
- Spencer, Jon M., *Blues and Evil*,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3.
- White, Jack E., "I'm just who I am," *Time*, May 5, (1997): 32-36.
- Wilson, Charles R., *Judgement and Grace in Dixie: Southern Faiths From Faulkner to Elvis*,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5.
- Wuthnow, R., "Restructuring of American Religion: Further Evidence," *Sociological Inquiry*, 66/3 (August, 1996): 303-329.